

< 9월 13일 주일 가정예배 설교 >

* 성경본문 : 출애굽기 14:13-14

* 설교제목 : 믿으면 이긴다

(출애굽기 14:13-14)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지난 2016년, 지금도 유명한 대결이 열렸습니다. 바로 인공지능 알파고와 한 시대를 풍미한 바둑 최강자였던 이세돌 9단의 세기적인 바둑 대결이었습니다. 다섯 번의 대결에서, 누가 이길 것인가? 대다수는 이세돌 9단의 승리를 점쳤습니다. 첫 번째 대국이 시작됩니다. 알파고가 정석과는 다른 수를 연이어 두자, 사람들은 ‘역시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의 표정은 달랐습니다. 이세돌 9단만큼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이세돌 9단이 왜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아는 데는, 몇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대국 당시에는 이해되지 않았던 수들이, 전체 그림을 알고 나서 복기해보니까 다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된 사람들은 다음 대국부터 알파고가 한 수, 한 수를 둘 때마다, 이상하게 생각하는 대신 ‘알파고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기대했습니다.

우리가 알던 상식과는 다른 결정이 내려질 때, 우리는 ‘왜 그럴까’ 의심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것이 더 좋은 ‘큰 그림’을 위한 것임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 무조건 신뢰합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 이어지면, ‘하나님이 진짜 알고 계실까’ 의심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신다.” 그 이야기를 오늘 함께 살펴봅시다.

이스라엘 민족을 풀어주지 않는 이집트 왕의 태도를 보신 하나님께서 이집트 전역에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이 닥쳤을 때, 이집트의 왕은 이스라엘 민족을 무조건 풀어주겠다고 선언합니다. 왕의 선언에 온 이스라엘 민족이 기뻐하며 곧바로 이집트를 탈출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길을 가던 백성들이 좀 이상한 것을 느낍니다. 1주일이면 갈 수 있는 쉬운 길을 놔두고, 광야로 가는 것입니다. ‘괜찮을까?’ 밀려들던 염려와 의심은 얼마 뒤 최고조에 이릅니다. 앞에 큰 바다로 길이 막혔는데, 뒤에서 이집트의 군사들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이 광경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함에 ‘우린 죽었다’고 울부짖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을 만나니 모세도 당혹스럽고 힘들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왜 쉬운 길을 놔두고, 이런 길로 인도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울부짖는 백성들을 바라보며, 모세는 하나님께 ‘어떻게 된 겁니까? 도와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13절 하반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렇습니다. 믿고 보기만 하면, 여호와께서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울부짖는 백성을 진정시키고,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납니다. 얼마 뒤 바다가 합쳐지고, 그들을 추격하던 이집트 군대가 수장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큰 그림을 위해 이곳에 인도하셨고, 큰 그림을 완성하셔서, 더이상 이집트가 추격하지 못할 만큼의 완벽한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때때로 하나님의 그림을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도 그랬듯이, 지금도 그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지금의 어려움도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세상을 다스리실 하나님을 믿고 기다립시다.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주실 승리의 날에 우리도 함께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여전히 심각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림을 그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기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게 하셔서, 결국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의지할 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